

유기적인 목양에 대한 온전케 하는 훈련

2007년 1월 28일

메시지 3

믿음의 공과를 배움

성경: 고후5:7, 살전1:3, 마11:22,24, 엡3:20, 고후1:20, 4:13,
히3:12, 딤후1:7, 삿5:15-16, 단11:32, 수1:6-9

I.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 원칙은 보이는 것이나 나타난 것이 아닌 믿음의 원칙이다—고후5:7.

- A.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이 믿음은 이미 성취된 신성한 사실들에 기초한다—딤후1:4
- B. 이러한 종류의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과 함께 말씀으로 부터 오는 살아 있는 믿음이다—롬10:17, 엡2:8.
- C. 믿음은 물려받은 유업을 ‘인출하는 것’, “이용하는 것”, 또는 ‘경영하는 것’이다—히11:1.

II.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의 일이 믿음에 속해야 함을 말한다—살전1:3

- A.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 안에 있는 믿음—마11:22-24.
- B.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엡3:21, 고후1:20.
- C. 우리의 능력이나 방법이나 그 외 어떤 것 안에 있지 않다.
- D. 믿음의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 봉사의 기초이다—살전1:8.

III.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믿음에 의한 것이지 보는 것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후5:7

- A.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 B.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엡3:17.
- C. 우리는 어떤 느낌이나 천연적으로 보는 것이 없이 믿어야 한다—고후4:8.

IV.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있는 믿음의 영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과 대조된다—고후4:13, 히3:12.

- A. 4장 13절에 있는 믿음의 영은 성령과 연합된 우리의 영이다. 우리는 시편 기자가 그러했듯이 그러한 영을 사용하여 믿고 말해야 한다—시116:10
- B. 히브리서 3장은 이것을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말한다. 이는 마음이 악한자에게 점유되어 있으므로 악한 마음이라 부른다—히3:12.
- C. 우리는 주님께 명하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

V. 의심은 우리의 생각 안에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고후4:13, 약1:6, 7.

- A. 의심은 우리 생각 안에 있지만 믿음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
- B.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막11:24.
- C. 믿음의 방패는 악한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킨다. 이러한 불화살의 대부분은 의심이다—엡6:16.
- D. 우리의 행함은 영적인 사실들에 기초한다.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가를 잊어버려야 한다. 우리는 의심의 구름아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살아야 한다—고후1:8-10, 렘17:7-8.

V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의 영이다—스1:4-6, 2:3-5, 마 8:26, 딤후1:6-7, 민13:30,33, 수1:6-9.

- A. 역사상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다—느1:4-6, 2:3-5.
- B.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다.
- C.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의 영을 주셨다.
 - 1. 그분은 우리에게 약한, ‘흐늘거리는’ 영을 주시지 않았다.
 - 2. 우리는 우유부단한 영이 아닌 담대한 영을 가져야 한다.

VII.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음은 어쩍이뇨 르우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삿 5:15하-16.

- A. 그들은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지 않았다.
- B. 그들은 마음에 큰 결심을 했고 마음의 큰 살핌이 있었다—삿5:15-16,31.
- C.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행동을 취하리라"—단11:32하.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한 부분: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음

디모데전서 1장 4절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하여 말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전적으로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은 위대하며 실제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신성한 삼일성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지금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분배를 누리기 위해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다. 신성한 삼일성의 분배는 우리 가정에 수도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로 설명할 수 있다. 물은 항상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물이 흘러나오는가는 수도꼭지를 얼마나 많이 여는가에 달려 있다. 신성한 분배는 하나의 사실이며 실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여 '수도꼭지를 틀어' 신성한 분배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며, 이 믿음은 이미 성취된 신성한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많은 사실들이 평범하고 단순한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특별히 신약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많은 항목들이 있다. 그러므로 많은 순간 우리는 신성한 사실과 함께 서지 않고, 우리의 느낌이나 타고난 관념을 더 사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쁨의 소식, 즉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것이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라"고 말씀하셨다(마22:4, 눅14:17). 하나님의 경륜의 '잔치'는 이미 요리되었다. 우리는 다만 와서 누리기만 하면 된다(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 130쪽).

영과 함께하는 말씀으로부터 오는 살아 있는 믿음

믿음이 생길 때, 또 그 영이 임재한다. 우리는 그 영과 믿음을 분리할 수 없다. 사실 믿음은 그 영의 한 기능이다. 말씀을 합당하게 읽어 우리에게 주입될 때 그 말씀은 그 영이 된다. 그 때 그 영은 믿음이 생기게 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 영의 기능의 결과이다.

그 영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 안으로, 특별히 우리의 영 안으로 들어온다. 심지어 우리는 그 영이 말씀으로 들어온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합당하게 대한다면, 말씀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것이며, 우리 안에서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체험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종종 에베소서 2장 5절과 8절을 사용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 고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러나 이 구절을 이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많은 이들

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그 믿음이 말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구원하는 믿음은 영과 함께한 살아 있는 말씀이 주입된 데서 생긴다. 이런 믿음은 단지 교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과 함께한 말씀에서 온 살아 있는 믿음이다(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비결, 117쪽).

사실과 믿음과 체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낱알의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다.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이라고 한다. 사실이 되었다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성취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은 다 완전한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은혜이다. 여기에는 사실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람의 동역이 필요하다. 이 동역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그분이 '이루신' 것에 사람이 무엇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참된 것으로 인정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루신 역사를 참된 것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실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다.

믿음은 '인출'이다. 나는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 의미로 이 단어를 쓴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수표 한 장을 주었다면 그것은 은행에 돈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 돈을 인출하기 원한다는 것은 곧 은행에 수표에 적힌 금액의 돈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출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다면 인출할 수 있다. 인출한 후에는 돈을 쓸 수 있다. 돈을 쓰는 것은 바로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인출하는 것은 '믿음'이며, 돈을 쓰는 것은 '체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역사하시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미 하나의 사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한 사람의 체험이 필요하다. 체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용하려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이루신 사실들을 믿음으로 취해야만 한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체험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나, 믿음은 하나님의 사실을 사람의 체험이 되게 한다. 성경에 나타난 것은 '사실, 믿음, 체험'뿐이다(워치만 니 전집 1집 1권 6장 96쪽).

우리의 일은 우리의 믿음에 속한 것이어야 함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행동하고 일하고 수고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의도할 때, 우리는 침체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이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관계없이 여전히 수고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우리의 일이 반드시 믿음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믿음은 어떤 일을 당신 자신 안에서나 당신 자신에 의해서나 당신의 느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매우 좋고 높은 느낌을 가질 때에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느낌에 관계없이 믿음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활력그룹의 훈련과 실행, 125쪽).

믿음의 영

고린도후서 4장 13절은 말한다. "기록한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여기에서의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섞여진 연합된 영이다.

알포드(Alford)와 빈센트(Vincent)는 그들의 주석에서 연합된 영에 관해 말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좀 모호하다. 알포드는 "그것은 분명 성령은 아니다. 그러나 단지 사람의 기질만도 아니다. 내주하는 성령은 새로워진 사람 전체에 스며들며 특징짓는다." 라고 말했다. 알포드는 한편으로 성령을 말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질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것이 연관되어 있음을 지적한다. 실제로 알포드가 언급한 것은 사람의 영이었다. 빈센트는 "믿음의 영은 분명히 성령이 아니며 사람의 기능이나 기질도 아니다. 그 둘의 혼합물이다." 라고 말한다. 빈센트의 인식은 위에 있는 알포드보다 진보된 것이다. 기능이라는 말은 기질이라는 말보다 확실히

진보된 것이다. 더 나아가 빈센트는 그 영과 특별한 사람의 정신 기능과의 섞임을 말한다. 이것은 실제로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과의 섞임이다(*고린도후서 라이프스타디*, 316-317쪽).

주님께 명하는 살아 있는 믿음으로 기도함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준비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한 적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주님의 생각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가 초대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들을 밤낮 주님께 가져감으로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강력하게 기도해야 한다. 이사야 45장 11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명령하라"(원문 참조) 라고 말한다. 우리는, "주님, 저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이 뭔가를 하셔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기를 배워야 한다.

우주 가운데 믿음의 비밀스런 원칙이 있다. 믿음은 주님을 존중한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믿음을 존중하신다. 살아 있고, 유력하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거나 불신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께 무언가를 하시기를 명령하는 살아 있는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께 무언가를 하시라고 명령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을 존중하실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해야 한다. 모든 의심은 원수에게서 온다.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며, 살아 있는 믿음을 사용해야 한다.(*생명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함*, 35-36쪽)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음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가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얻을 수 있다(막 11:24).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되셨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주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이 구절을 체험한 것에 대해 두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주님의 러시아로의 움직임에 관한 것이다. 1991년에 미국이 이라크를 패배시킨 직후, 한 가지 생각이 내게 왔다. "왜 러시아로 가지 않느냐? 지금이 때다." 내가 인도하는 동역자들과 이 문제에 대해 교통했을 때, 그들 모두가 나에게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도들에게 알려 러시아로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주님의 이러한 움직임들을 위해 즉시 몸의 반응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성공하리라는 완전한 확신을 내가 가졌던 것에 대한 하나의 간증이다(*하나님-사람의 생활*, 214쪽).

자신의 부담에 자원하여 드리는 느헤미야의 진취성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취적인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마르틴 루터는 매우 적극적이었다. 니 형제님도 부드러우셨지만 매우 진취적이었다.

느헤미야는 분명 진취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부담 아닌, 그의 부담에 자원하여 드렸다. 그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졌다. 그의 진취성은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오늘날 주님의 회복 안에 매우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취성이 부족하다. 만일 우리 가운데 오천 명만 진취적이라면, 세상이 뒤집어질 것이다. 만일 각 대륙에 칠백 명의 진취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 느헤미야의 진취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비록 그는 평범했고 왕의 신하였지만, 하나님께 그리고 성의 건축에 관한 그의 부담에 자신을 자원하려 드리는 데 적극적이었다. 왕이 그의 슬픈 얼굴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왕에게 담대하고도 적극적으로

로 예루살렘 성을 위한 그의 부담을 말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것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느헤미야 라이프스터디 메시지 12, 14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임

바울은 그의 체험에 따라 디모데후서 1장 6절과 7절을 썼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불일듯하게 하라고 상기시켰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았음을 말한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의 세 부분—의지, 감정,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우리 존재의 중앙에 있는 영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능력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냉철한 생각의 영이다. 능력은 우리의 의지에 속한다. 사랑은 우리의 감정에 속한다. 냉철함은 우리의 생각에 속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영을 주셨다. 우리의 의지는 강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의 감정은 사랑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며, 우리의 생각은 온건하고 냉철함으로 충만해야 한다.

신성한 계시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닌 능력의 영을 주셨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강한 의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당신의 영을 사용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의지가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할 것이다. 우리의 영은 강력한 의지만 아니라 사랑하는 감정과 냉철한 생각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구름이 끼거나 안개가 서리지 않고 매우 청명하고 냉철해야 함을 뜻한다(우리의 영과 함께하시는 그 영, 82쪽).